

제65차 IAEA 정기총회 5일차 하이라이트



부대행사

원자력발전의 도입을 준비하는 국가의 규제 기반 개발의 공통적인 과제는 ‘규제 협력 포럼’(Regulatory Cooperation Forum)의 ‘전체 회의’(Plenary Meeting)의 주요 주제였다. 참가자들은 IAEA 규제협력포럼 전략 계획 2020~2024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신규 도입국가의 경험과 원자력발전이 확립된 국가의 규제당국으로부터 받았던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남미와 카리브해의 원자력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지역협력 협정(ARCAL)에 따라 원자력 분야 여성종사자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지부의 출범식이 시행되었다.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Women in Nuclear)는 35,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국제 규모의 비영리단체로 원자력분야

내 여성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확장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회원국 활동

헝가리의 주도로 시행한 ‘유럽원자력실험교육 플랫폼과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한 원자력 역량 향상’ 행사에서 유럽원자력실험교육플랫폼이 제시되었다. 이 플랫폼은 전 세계 대학과 원자력분야의 청년 전문가들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럽의 협력기반이다.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한 원자력 과학 및 기술 프로그램을 위하여 각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IAEA의 지원책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다.

멕시코가 주관한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원자

력분야의 인재 지원' 행사에서는 원자력 과학 및 기술 개발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시성을 강화하였다. 패널리스트들은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들을 다루었고, 원자력 분야에 더욱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비전을 포함해 이슈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아르헨티나가 주도한 '패널토론: 성별의 관점에서 보는 청정에너지 계획' 행사에서는 청정에너지 계획에 대한 성별 관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주요한 접근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였다. 참가자들은 기후 위기 해결책의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여

성들이 자연의 자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고려하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원자력과 관련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다른 활동들

IAEA와 세계원자력협회(WNA, World Nuclear Association)는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WNA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IAEA가 원자력 과학과 기술을 기업 및 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Nuclear Saves의 파트너 기관이 되었다. 홍보 파트너로써 WNA는 IAEA의 메시지와 성과를 홍보할 것이다. **KMIF**